

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, (주)더마프로와 노화 예방 화장품 개발 혁신 MoU 체결

- 고령층 대상 화장품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, 사용성 평가 서비스 관련 협력 기대



▲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과 (주)더마프로 백지훈 연구소장이 노화 예방 화장품 개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센터장 오창명)와 주식회사 더마프로(대표 고재숙)가 **화장품 산업 기술 정보교류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**했다고 밝혔다.

협약식은 14일(목) 광주 남구에 위치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**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과 (주)더마프로 백지훈 연구소장 및 관련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** 진행됐다.

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**▲화장품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▲화장품 사용성 평가 서비스 관련 협업 ▲기타 화장품 분야 산업 저변확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해 상호 협력**할 계획이다.

이번 협약은 노화 예방을 위한 피부(윤기, 붉은기 완화, 모공 수축, 탄력 강화, 주름 개선 등)와 모발(탄력, 윤기, 수분, 볼륨) 강화, 두피 개선 등 고령층 대상 **사용성 평가 및 관련 데이터 수집을 적극 추진하고 상용화를 촉진**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오창명 센터장은 "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이 보유한 기술 역량 및 인프라를 적극 연계·활용함으로써 **국내 코스메디케어 관련 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사업화**를 위해 **다각적으로 노력**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(주)더마프로 백지훈 연구소장은 “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 “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,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호남권 최초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‘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’로 선정되어 고령친화제품 품목별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우수 제품 사용성 평가 등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